

# 다니엘서 - 제10번

## 과정

Jeff Pippenger

2023-12-05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칠십 년간의 포로 기간에 사로잡혀 갔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계속 있었다. 다니엘 1:21.

그리하여 다니엘은 칠십 년 포로기의 전 기간을 겪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살았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에스라 1:1.

따라서 다니엘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알리는 '칙령'까지 계속되는 14만 4천의 시험 과정을 상징한다.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희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또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4, 5.

칠십 년의 포로 기간은 14만4천의 시험과 정결의 기간이다.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의 셋째 화가 도래했다. 이 사실을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인정한다.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초기 재림교 개척자들에 의해 모두 이슬람으로 올바르게 규정되었다. 엘렌 화이트가 지지했고 하박국 2장의 성취로 인정된 1843년과 1850년의 개척자 도표 둘 모두에서, 이슬람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로 식별되어 있다. 마지막 세 나팔은 화의 나팔들이다.

내가 또 보았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아직 나팔을 불게 될 세 천사들의 남은 나팔 소리들 때문이로다!" 요한계시록 8:13.

만약 '화의 나팔'이 세 개 있고, 첫째와 둘째 '화의 나팔'이 이슬람이라면, 셋째 '화의 나팔'도 이슬람임을 알아차리기는 꽤 쉽다. 이슬람을 '화의 나팔'로 상징할 때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억제되었다가, 때가 되면 풀려난다는 점이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을 "성난 말"로 규정하며, 그것이 "벗어나려" 하고 그 뒤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려 한다고 말한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속박에서 풀려나 온 땅의 지면을 가로질러 쇠도하려 하며 그 지나가는 길마다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분노한 말로 표상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버리겠는가? 우리가 무감각하고 냉랭하며 죽어 있겠는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이는 한이 없다. Manuscript Releases, 20권, 217쪽.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는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성경 예언의 '분노한 말'을 억제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 화의 나팔이 언급된 요한계시록 9장에는 한 왕이 지목되어 있다. 그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지목된다.

그들에게 그들 위에 있는 왕이 있었으니 그는 무저갱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들 위에 있는 자로서. 요한계시록 9:11.

이슬람의 왕의 이름, 곧 그의 성격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두 이름의 정의 속에 이슬람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두 단어의 뜻은 모두 '사망과 멸망'이다. 화이트 자매는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네 천사가 제지하고 있는 '성난 말'이 풀려나 자기의 행로에 '사망과 멸망'을 몰고 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이슬람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이슬람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아버지인 이스마엘이다. 그 첫 언급에서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으로 규정되며, 여기서 "wild"로 번역된 단어는 "야생의 아라비아 당나귀"를 뜻한다. 이슬람을 가리키는 첫 예언적 언급은 말 종류의 상징이며, 선구자들은 두 장의 성스러운 도표에서 첫째 화와 둘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을 말로 묘사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치실 때까지 불들려, 곧 "억제"되어 있다.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과정은 또한 시험의 과정이자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예언적 예증은 첫 번째 메시지의 권능 부여를 상징하는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녀를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칙령'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생활로 대표된다. 이슬람이 억제되었다가 풀려나는 것은 성경 예언의 상징으로서 이슬람의 예언적 특징이다.

그들을 "네 바람"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동안 그들은 제지되어 있다.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된 391년 15일이라는 기간의 예언에서, 둘째 화가 시작될 때 둘째 화의 이슬람을 대표하는 네 천사가 "풀려났다". 그 예언의 끝에서 그들은 "제지되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 이에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4, 15절.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풀려났다". 그때 14만 4천의 역사에서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제지"되었다. 화이트 자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만, 먼저 성경에서 이슬람이 처음 언급될 때 그 목적이 열방을 격노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슬람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야인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하리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역할은, 유엔이 그 분노를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퍼붓기 전에, 모든 민족을 이슬람에 맞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9·11을 밀러파 사건들의 연속이 반복되기 시작한 표징으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때의 '다니엘'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여호야김은 그 시험 과정의 시작을 가리키며, 이어 셋째 화의 이슬람이 풀려났지만 곧바로 억제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치실 수 있게 되었다.

이 견해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형제들이 극히 적었고, 그들 중에서도 그 준수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사이에 경계를 그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 견해의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감되어 가는 동안, 땅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국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소리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예비할 것이다. Early Writings, 85.

다니엘의 칠십 년은 이슬람이 풀려나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타격함으로써 열방을 분노하게 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 후 이슬람은 제지되었고, 그리하여 셋째 천사의 일이 마쳐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천사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이며, 그 일이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될 때 늦은 비가 '뿌러지기' 시작했다. 다니엘 1장은 14만 4천의 시험 과정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시험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금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한 백성을 대표한다. 다니엘 1장에서 그 시험 기간의 결론은 '날들의 끝'으로 지칭된다.

왕이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정해 둔 기간이 다 차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 보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일에 있어서, 그는 그들이 그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점성술가들보다 열 배나 뛰어난을 알았다. 다니엘 1:18-20.

다니엘과 세 의인에게 예언적 시금석을 나타내는 세 번째 시험은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받았을 때였고, 그때 그들은 "그의 온 왕국에 있던 모든 마법사와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더 나은 자들"로 판정되었다. 세 번째 시험은 심판으로 대표되며, 그 심판은 "날들의 끝"에 일어났다. 다니엘서에서 "날들의 끝"은 다니엘이 자기의 뒤통에 서는 때를 가리킨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다니엘)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안식할 것이요, 날들의 끝에 네 분깃에 설 것임이라.'

다니엘이 자기의 분깃에 설 때가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주께서 그렇게도 많은 일을 행하신 그들이 그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4권, 1174쪽.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 12장 10절의 정결케 되는 과정과 연결하여 '끝날'을 설명한다. 그녀는 종종 13절의 '끝날'과 함께 10절을 인용한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다니엘)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안식할 것이요, 날들의 끝에 네 분깃에 설 것임이라.'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정한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는 그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아가야 한다. '그 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그 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그 때까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일 것이다. 그 때에 네 백성 가운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깨어나되,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로 나아가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영원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에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우리는 반쯤도 깨어 있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 없다. 우리는 살아나 서로 연합해야 한다. 이제, 바로 지금, 우리는 회개와 용서가 우리의 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탄이 눈을 멀게 하는 그 일에 가담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다.

나는 성령께서 허를 주시고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지혜롭게 일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저기서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 험고 파괴하려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와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 곧 그의 법도를 행해 온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니라." Australian Union Conference Record, 1907년 3월 11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다니엘의 칠십 년으로 표상되는 14만 4천의 인침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타나 있다. 그 구절은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특징인 세 단계를 밝혀 주므로 '진리'의 표식을 지닌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그 후 시험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1장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어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빛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함을 보여 주었다. 그들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의, 곧 흰 의복이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끝났을 때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심판 앞에 나아가 시험을 받았다.

'끝날'에, 다니엘이 '자기 분깃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일'에서 다니엘과 그 진실한 세 사람이 그의 온 나라에 있던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더 낫다고'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다니엘서 1장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치는 14만 4천의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 논평하며,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우리는 반쯤도 깨어 있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살아나고, 연합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회개와 용서가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그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끝날'로 이끄는 시험의 과정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부활로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2001년 9월 11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른 뼈들로 표상된 것처럼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나서, 연합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될 것이다. 우리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보여 주듯이 나타나는데, 그는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2020년 7월 18일 지체의 때의 시작을 표시했던 그 실망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께 거슬러 행해 왔음을 인정한다. 그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거슬러 행해 오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니엘은 2020년 7월 18일 이후 '칠십 년'의 포로기를 지나온 자들을 대표한다.

칠십 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을 상징한다. 역대기는 칠십 년이, 고대 이스라엘이 레위기 25장의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그 땅이 '누리게' 되는 기간이었다고 알려준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여, 그 땅이 자기의 안식년을 누리실 때까지, 곧 그 땅이 황무한 동안에는 안식하게 하여, 칠십 년이 차게 하셨다. 역대하 36:21.

예언적인 "광야"의 상징으로서, 2020년 7월 18일 이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던 "삼일 반"은 "칠십 년"의 상징이며, 또한 "일곱 때"의 상징이기도 하다. "날들의 끝"은 다니엘서에 봉함된 예언적 날들의 끝을 상징한다.

1798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고,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 서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분깃과 처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6권, 108.

1844년 10월 22일, 다니엘서 8장 14절이 성취됨으로써 다니엘서는 다시금 그 분깃에 섰다. 1798년과 1844년은 첫째와 둘째 진노의 결말이며, 그러므로 '일곱 때'의 끝을 가리킨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날들의 끝'은 '일곱 때'로 표현된 사로잡힘의 종결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일곱 때'가 그 위에 지나가는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 '그 날들의 끝'에 그의 나라와 이성이 그에게 회복되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였고,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였나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을 받고, 그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민들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그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도 없느니라.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모사들과 귀인들이 나를 찾았고, 나는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았으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다니엘 4:34-36.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의 끝은 '날들의 끝'으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이는 '칠십 년'과 또한 '일곱 때'의 상징적 결말을 나타낸다. 그때에는 '회개와 용서'가, 죽어 말라버린 뼈들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길 위에서 이전에 죽어 있던 자들의 일을 나타내는 특징이 될 것이다.

14만 4천의 회개의 사역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특징은 에스겔 9장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개인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자신들이 조상들의 같은 죄를 되풀이해 왔음을 인정하고, 자기 견해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해 왔음을 시인하며, 또한 2020년 7월 18일 지체의 때가 도래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반하여 행해 오셨음을 인정할 때, 그때 그들은 나라의 다른 모든 자칭 지혜자들보다 '열 배' 더 큰 예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인침 과정은 이슬람이 먼저 풀려나고 그다음 억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은 시작된 대로, 이슬람이 다시 한 번 풀려날 때 끝난다. 그것은 인침의 때가 끝날 때 풀려나는데, 다니엘에게 그 끝은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었다. 바로 정결의 날들이 끝나고,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이라는 '칙령'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신실한 자들이 '열 배 더' 예언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고 있다. 나는 늦은 비가 한밤중의 외침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열 배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Spalding and Magan, 5.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할 한밤중의 외침이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져 낙심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예비하였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보내어져, 그들로 하여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고 외치도록 강권하였다. 그 외침을 맡은 이들은 서둘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사업은 사람의 지혜와 학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스릴 수 없었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먼저 이 기별을 받았고, 전에는 그 일을 주도하던 이들은 맨 나중에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는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데 동참하였다." 초기문집, 238.